

기획

바로 알고 바로 판단하여 바로 행하는 것, 경희의 정신

60년 상록원 역사와 삼정행(三正行)

황경선 기자 sunny96@khu.ac.kr

#. 한 동안 덤프트럭과 포크레인 등 공사차량의 행렬이 이어져 ‘빨리 지나가고 싶은’ 소음의 장소였던 상록원이 지난 18일, ‘계속 머무르고 싶은’ 공간이 되어 우리 곁에 돌아왔다. 넓게 펼쳐진 초록색 잔디광장은 노란색의 문화복지센터 건물과 유쾌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데, 거기에 파란 가을 하늘까지 더해져 요즘 청운관 주변에선 그야말로 색채의 향연이 펼쳐지고 있다. 상록원이 새 단장을 한 뒤 벤치에 모여 앉아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학생들의 모습도 늘었다. 상록원의 새로운 모습에 구성원들이 대체로 만족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언제부터 어떤 모습으로 학생들의 곁에 존재해왔는지 알아봤다.

상록원은 1956년에 개교 7주년을 기념해 ‘녹원’이라는 이름으로 조성됐다. 이 공간은 학생들에게 학술탐구에 필요한 휴식처와 자연 속에서 사색하는 장소를 마련해주고자 했던 조영식 학원장의 바람에 의해 태어났다.

개교 10주년인 1959년에는 녹원 중앙에 우리나라 최초의 현대식 새소식판(키오스크)가 설치됐다. 당시에 문리과대학, 법과대학, 정경대학, 체육대학의 네 단과대학이 새소식판을 종합 게시판으로 이용했다. 소식판에는 학교의 각종 홍보물들이 게시됐는데 학생들은 등나무 밑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홍보물을 접했다.

상록원, 1956년 개교 7주년 기념 ‘녹원’이라는 이름으로 조성

이 시기의 녹원은 여러 용도로 이용됐다.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모여 답소를 나누는 장소였고 화창한 날에는 야외수업이 진행됐다. 때로는 교련의 장소로 이용됐으며 결혼식이 열리기도 했다. 당시 녹원의 모습을 어렵풋이나마 기억한다는 이순자(생물학 1961) 동문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 댄 정확한 이름은 몰랐지만 동아리 모임을 자주 했던 곳이다. 벽보(게시물)가 덕지덕지 붙어있었다. 가끔 체육대학 남학생들과 만나 얘기를 나눴던 기억도 난다. 특별한 일은 없었지만 자주 들렀던 장소였다.”

1970년대에 학교를 다녔던 정종태(정치외교학 1976) 동문 또한 녹원을 ‘특별하지



① 현재 청운관 앞 상록원 모습
② 1950년대 후반 ‘상록원’의 모습
③ 1967년 상록원 모습



는 않지만 자주 들렀던 장소’로 기억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며 당시의 녹원을 회상한다.

“본관 앞 광장처럼 동기들과 놀고 싶을 때 딱 떠오르는 공간은 아니었지만 자주 가서 앉아있긴 했다. 야외수업을 몇 번 했던 기억도 있고, 언제는 결혼식 하는 것도 봤다. 그 쪽이 미관상 좋아서 결혼식을 종종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이처럼 학생들에게 편한 쉼터 역할을 했던 녹원은 2000년에 청운관이 건설되면서 크게 변모한다. 깨끗하게 재단장된 것은 물론이고 정식 명칭도 상록원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이 시기에 이전까지 새소식판이 있던 중앙 4개의 기둥에 8개의 대리석판이 붙어있는 흰색 탑이 세워졌다. 현재 상록원 중앙에 있는 ‘청운의 탑’이 그것이다. 대리석판에 새겨져 있던 글들은 경희의 정신을 표현한 것으로, 지금도 청운의 탑에 적혀있다. 8개의 대리석판에 새겨진 내용들은 아

래와 같다.

- ①삼정행(三正行) 하라. 그 속에 모든 답이 있다. 바로 알고(正知) 바로 판단하여(正判) 바로 행하면(正行) 모르는 것도 없고(不可知)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없다.(不可解) 그러기에 하면 된다. 해야 한다. 해 내야만 한다.
- ②우주의 본질과 현상변화는 어떤 것인가. 나는 누구이기에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운명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성되어지는 것이다.
- ③인간은 역사 문명의 주체로 개척자이다. 그러기에 나에게서는 꿈이 있다. 고민이 있다. 인류역사 되돌아보면 참다운 삶의 길 열자.
- ④젊은이들이여 낭만과 사랑, 꿈과 호연지기를 아는가. 마음이 넓어지면 세상이 밝아진다. 대인은 진리를 말하고 소인은 득실을 따진다.
- ⑤화합하려면 시비를 논하지 말라. 대성하려면 고난에 도전하라. 신뢰와 협동 속에 모두의 번영이 있다.

⑥우의와 신의를 저버릴 때 사회는 어두워진다.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 자와는 상종하지 말라. 가정이 해체될 때 이 세상에는 종말이 온다.

⑦물질문명 인간을 경시하고 과학기술 문명 인간을 소외한다. 인간의 정신문화 물질문명 조화시켜서 아름답고 풍요하고 보람있는 사회 이루자.

⑧새 천년 바라보며 Neo-Renaissance 햇불 들자. 21세기 인류사회의 선도자 되어 유엔 중심의 인간적 인간 사회 문화적 복지 사회, 보편적 민주사회, 지구공동사회 이루어내자.

이 문구들은 조 학원장이 그의 저서와 강연들을 통해 자주 강조했던 사상을 상록원 건설단이 골라 새겨 넣은 것이다. 참된 인간상을 얘기하는 유교적 사고방식과 물질문명에 매몰된 인간성의 회복을 바라는 그의 염원이 이 8개의 대리석판에 녹아 있다고 한다. 특히 마지막 7, 8번 째 대리석

판에 적힌 글들에는 우리학교가 물질문명에 파묻힌 참다운 인간성의 회복을 위해 오늘날까지도 구호로 내걸고 있는 ‘Neo-Renaissance’ 정신이 잘 드러나 있다. 경희 기록관 남기원 계장은 대리석판에 새겨진 글귀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첫 번째 대리석판에 새겨진 ‘삼정행’은 80년대 초반부터 조 학원장이 강조했던 덕목이다. 생각없이 행동을 해서 인류사회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올바르게 알고, 판단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우리 학교가 주도하고 있는 ‘밝은 사회 운동’의 세부 운동 중 하나가 이 삼정행이기도 하다. 삼정행 외에도 8개 대리석판에 적혀있는 글귀들은 조 학원장 본인이 깊이 고민한 뒤 체화한 이야기들을 학생에게도 들려주고 싶어 여기에 실은 것이라고 해석을 해 볼 수 있다.”

2000년 이후, 8개 메시지 적힌 흰색탑 우리학교 정신담은 상징적 공간

이후 상록원은 작은 변화를 거듭하다 올해 보행로 확장과 구성원들의 복지를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 공사과정을 거쳐 지금의 모습을 갖게 됐다. 2000년 이전에는 휴식공간이라는 의미가 컸던 상록원은 2000년 이후 8개의 메시지가 적힌 흰색 탑이 들어서면서 우리학교의 정신이 담긴 상징적인 공간으로 탈바꿈됐지만 울창한 나무들에 가려져 구성원들과 다소 떨어져있게 되었다.

상록원은 이제 넓은 잔디마당으로 바뀌어 구성원들이 쉽게 다가가 수 있는 공간이 되었다. 그런 면에서 이번 공사는 상록원을 휴식공간과 상징적 공간이라는 두 가지 특성을 조화시켰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앞으로도 상록원이 단순한 휴식공간이 아닌 인간과 문명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의미 있는 공간으로 언제나 학생 곁에서 푸른 모습으로 남길 기대해 본다.



한 박자 빠른 소식을 원한다면
각종 뉴스의 링크서비스를 받고 싶다면
기자들의 취재단상이 궁금하다면
제보하고 싶는데 어디다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내일의 날씨와 같은 소소한 정보까지 얻어가고 싶다면

주저말고 지금,

대학주보와 친구가 되어 주세요
SNS에서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khunews@khu.ac.kr



http://media.khu.ac.kr/khunews